

석사학위논문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혜영

2004년 2월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출자 박 혜 영

박혜영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1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초록>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박 혜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방 희

우리나라 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 교과서는 학습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교수-학습의 기본 자료로써,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외적 체제나 품질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또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고, 세계화 시대로서 이러한 사회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교과서도 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과서의 국제 비교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 세 나라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의 내용체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술교과서 체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다 줄 방안을 찾고자 했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와 교과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편찬실태와 외형적 체제, 그리고 내용체계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셋째,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크기를 지금보다 크게 하고 인쇄 질도 높여야 하겠다. 또한, 사용된

서체의 수가 적고 단순한데 단원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색상과 서체를 사용하여, 감각적이고 풍부한 느낌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보는데 있어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바뀌어야겠다.

둘째, 내용면에 있어서는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 ‘미술과 음악’ 등 사회·문화와 연계된 내용구성과 더불어 컴퓨터, 영상매체 등 현대적 미술매체의 소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세 나라 교과서에 실린 참고작품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작가와 외국작가, 학생 작품의 비율은 적당한 편인데, 한 장에 너무 여러 개의 참고작품이 실려 있어 산만하게 느껴진다. 페이지 당 참고작품의 수는 줄이고 그 크기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입체표현보다는 평면표현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도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미적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좀 더 감각적이고 질 높은 참고작품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책으로 된 교과서만으로는 작품제작과정이나 참고작품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교과서로 영상교과서를 시디롬(CD-Rom)으로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재료와 용구사용에 있어 안전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겠고 지역성을 고려한 표현 재료의 예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용이 용이한 재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점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정제로 실시되고 있는 교과서제도를 과감하게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것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연구진과 집필진들의 끝없는 노력과 함께 많은 투자의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2
II.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육	3
1. 한·미·일 미술 교육의 개요	3
1) 한국	3
2) 미국	4
3) 일본	7
2. 한·미·일 교과서 제도	8
III.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분석과 개선방안	13
1. 미술교과서의 외형체제 및 편집체제 분석	13
1) 한·미·일 미술 교과서 집필자 비교분석	13
2) 외형체제	15
3) 편집체제	18
4) 교과서 쪽수별 페이지 수 비교분석	22
2. 미술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분석	22
1) 각 교과서의 내용 구성체제 비교분석	24
2) 교과서 단위별 학습내용 비교분석	25
3) 교과서 단위별 참고 도판 비교분석	37
4)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 및 용구 비교분석	43
3. 우리나라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개선방안	49
IV. 결 론	52
참고 문헌	56
Abstract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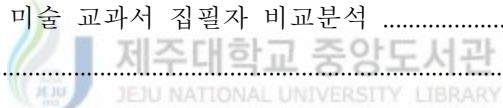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1>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	2
<표 2> 한·미·일 미술 교과서 집필자 비교분석	14
<표 3> 한·미·일 미술교과서의 체제 비교표	16
<표 4> 한국 교과서 쪽수별 도판수	22
<표 5> 미국 교과서 쪽수별 도판수	22
<표 6> 일본 교과서 쪽수별 도판수	22
<표 7> 한국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단원별 학습내용	27
<표 8> 미국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단원별 학습내용	29
<표 9> 일본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의 단원별 학습내용	36
<표 10> 한국 미술 교과서의 참고작품 도판 수	39
<표 11> 미국 미술 교과서의 참고작품 도판 수	41
<표 12> 일본 미술 교과서의 참고작품 도판 수	42
<표 13> 한국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	45
<표 14> 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	47
<표 15>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	48

그 립 목 차

<그림 1> 한국 미술교과서 앞표지	16
<그림 2> 한국 미술교과서 뒷표지	16
<그림 3> 미국 미술교과서 앞표지	17
<그림 4> 미국 미술교과서 뒷표지	17
<그림 5> 일본 미술교과서 앞표지	18
<그림 6> 일본 미술교과서 뒷표지	18

<그림 7> 한국 교과서의 편집체제	19
<그림 8> 미국 교과서의 편집체제	20
<그림 9> 일본 교과서의 편집체제	2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교수-학습의 기본 자료로서,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집」에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¹⁾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교사에게 중요한 교수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학습 자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교과서를 제외한 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재나 기타 미술 관련 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서²⁾ 미술교과서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술교과서는 그 내용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 보다 주로 각종 그림이나 도표,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문자언어 보다 시각언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술교과서의 내용뿐 아니라 외형 그 자체도 미술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므로, 다른 어느 과목의 교과서보다도 내용체제뿐만 아니라 외형체제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고 세계화 시대로서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계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런 사회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응하여 교과서도 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내에서만 문제를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우리나라 중등학교 미술교과서 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범위

1)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191

2) 전상철(1999), “미술 교과서 집필상의 문제점과 개선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5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체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다 줄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연구내용으로는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와 교과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편찬실태와 외형적 체제, 그리고 내용 체계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한국과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고, 교과서의 연구에 관한 논문자료와 학술자료를 찾아보았다.

둘째, 한국과 미국, 일본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와 미술교과서의 역할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형적 체제와 내용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연구에 대한 범위로는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내용체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6종 교과서중 하나인 교학사 미술교과서, 일본은 문부성이 2002년부터 개정된 평성 13년 2월 5일 5판 발행된 3종인 日 日本文교출판(日本文教出版), 개룡당(開隆堂), 광촌도서(光村圖書) 중 日本文교출판사의 미술교과서, 미국은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제시한 미술교재 중 글렌코/맥그로힐 (Glencoe/McGraw-Hill) 출판사의 글렌코 미들스쿨 아트시리즈(Glencoe Middle School Art Series)중 익스플로링 아트(Exploring Art)를 구입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

국가	교과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계(권)
한국	미술 1	교학사	2000년	6종
미국	Exploring Art	Glencoe/McGraw-Hill	1999년	다양
일본	미술 1	日本文教出版	2003년	3종

Ⅱ. 한국, 미국, 일본 중학교의 미술교육

1.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육의 개요

1) 한국

한국의 경우 미술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보급하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이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이 존중·발휘되는 지방분권적 성격이 미미하고, 교과서나 대학입시 위주의 학교 미술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또 미술장르 중심, 표현방법중심에 치우쳐 있고, 그나마도 ‘미술과 생활’이라는 영역을 새로이 만들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했으나, 최근미술의 다양한 변화와는 동떨어지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해가 미흡하여 그 취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의 미술교육은 조형 기술 중심에 치우쳐 회화나 조각 등의 장르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예술을 폭넓게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한 ‘교양적’ 성격을 경시함으로써 조형의 근본인 미학적 사고나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³⁾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점은 미술품의 감상능력과 창의적인 표현,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⁴⁾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안된 목표로서, 미술교육을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목적에 따라 교과서의 구성도 교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적 체험’은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표현’은 의도한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고, ‘감상’은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며 미술 문화를 존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각 영역을 회화, 조소, 디자인, 감상, 서예 등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융통성 있는 교과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술교과의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 영역의 비중이 같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표현영역이 가장 비중

3)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1990),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4

4)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159-160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 여전히 표현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교사의 상당한 재량권 하에서 미술수업이 진행된다. 교수요목도 교사들에게 참고자료일 뿐이다.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미술과 교수-학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과서는 학습 자료중 하나이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언급하여야겠다.

미국 미술교육의 중요한 흐름은 학문기초 미술교육(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이라는 이론으로써 현재 미국 내 가장 유력한 기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교육협회의 교육목표 등, 미국 각 주의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도 이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학문기초 미술교육은 미술을 미술창작,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미술창작 영역으로 미술 활동에서의 제작적 측면을 의미하며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매체를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둘째, 미학은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미술 작품이나 자연 환경이 지닌 미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미술 작품의 표현적 특성을 깨닫거나 대상에 대해 미적 반응을 한다거나 주위환경에 대해 미적 관심을 갖는 등 미적 감각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즉, 시각적인 관찰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표현 특성을 인지하고 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셋째, 미술사는 미술 작품이 지니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관찰하고, 그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 시대별·양식별 미술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얻고,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며, 문화유산을 애호하고 보존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넷째, 미술비평은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이해 및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술 작품을 선택하고 가치 판단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위와 같은 4가지 대영역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침 없이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표현활동(실기)에 큰 비중을 두고 지도해온 전통적인 미술교육에서 탈피한 모습이다. 미국 미술교과서는 이와 같이 표현활동 그 이상으로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미술이 기술적인 교과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교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는데 그 지향점이 있다.

3) 일본

일본의 미술과 목표는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내는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적인 힘을 기르고, 풍부한 감정을 키우는데 있다.⁵⁾

일본의 미술교육은 미술교재를 통해 전국에서 거의 똑같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술을 지도하는 많은 교사 및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서양식 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일본식 미술 교육도 조금씩 그 체제가 변화되어 다양성과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는 수업의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업의 길잡이이며, 정부에서 지정한 범위의 교과 내용을 실은 교재의 성격을 띤다.

일본 미술교육의 목표점은 표현과 감상의 능력을 넓혀 미술을 애호하고 품성 좋은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에 있다. 일본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⁶⁾

그림과 조소 등 표현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기르며 표현능력을 길러준다. 디자인, 공예 등의 표현으로 발상을 풍부하게 하며, 목적과 조건에 적응하는 제작능력을 기른다. 감상활동을 통해 작품 내면성의 뜻과 자연의 조형성에 관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넓혀준다.

중학교 미술 교과목의 평가 기준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인간성의 회복, 정서의 풍요로움을 위한 실천, 조형능력의 신장, 개성의 존중, 생활환경과의 관계 발전 등이다.

일본 미술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목표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그 이듬해 조선 교육령이 선포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일제하의 교육체제로 전환되었는데, 해방 이후 아직까지도 일본 교육체제의 영향이 우리나라 미술교육에도 잔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황지영(2000), “한·일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연구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21

6) 김정(1993), 전개서, 예경, p.414

2. 한·미·일 교과서 제도⁷⁾

교과서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책으로 개발방식, 내용구성, 선택방식, 사용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 세 나라의 미술교과서는 각 나라의 교과서 제도에 맞춰 발행 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체제는 각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 세 나라의 교과서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 교과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

교과서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과서 집필, 발행, 공급, 선택, 내용의 검정 또는 심사 여부, 크기(판형), 색도, 쪽수 등의 체제, 교과서 대금과 재활용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과서 관련 주요 정책이 국가 주도적인가 아니면 민간 주도적인가에 따라 크게 국정제, 검인정제, 자유 발행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 편찬과 발행을 담당하는 제도이며, 자유 발행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교과서 편찬과 발행이 가능하며, 교과서로서의 인정은 사용자(주로 교사)의 선택에 맡겨지게 된다. 국정제와 자유 발행제의 절충 형태가 검인정제라 할 수 있는데, 교과서의 발행을 일종의 승인 제도를 두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⁸⁾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말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이하 ‘보완 교재’라고 함)을 말한다. 그리고 ‘지도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를 말한다. 한편 교과용 도서는 저작권자에 따라 1종 교과용 도서와 2종 교과용 도서로 구분하다. 1종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것이며, 2종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지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이다.

7) 정국진, 배우창 외(1999,2000) 「교과서 연구 33호, 35호」의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8) 락병선·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교과서는 세 종류로 구분되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 교과서(국정교과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는 2종 교과서(검정교과서) 그리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 1종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 등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편찬하며, 2종 교과서는 대학교수 및 교과서 전문가와 계약한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다. 인정도서는 학술단체 또는 시·도 교육연구원 등에서 편찬한다.

1종 교과서는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서 연구개발비를 지정된 연구기관에 보조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조사를 거쳐 교육부의 교과 담당편수관이 최종 정리한 후 결재본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편찬한다.

2종 교과서는 교과서 출판사와 약정이 되어 있는 민간인 저자가 집필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용 도서 심의회가 검정 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짓는 방법으로 편찬한다.

교과용 도서 선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1종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없을 경우에는 2종 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해당 학교에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하는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도서는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다른 학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교과서는 2종 교과서에 해당되는 검정 교과서이다. 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뿐만 아니라 판형, 지질, 색도, 편집디자인, 활자체 등 외형체제에 관한 상세한 부분도 교과서의 검정규정과 지침에 의해 심사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과 틀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한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미술교과서들이 비슷하게 획일화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검인정 제도 하에서는 저자와 출판사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가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 펼쳐놓고 보면 책의 특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수준의 개성 있는 교과서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행 검인정제도의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든가 아니면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든가 하는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 교과서 제도

미국의 모든 교과용 도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하며 주교육성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검인정제와 유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와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교과목별 순환 심의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전과목을 일시에 심의하지 않고 연도별로 돌아가며 해당 교과서를 심의하는 제도이며 발행주기는 6년에서 8년이다. 교과서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한 주기를 더 사용하도록 연장해주거나,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발자와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인 듯 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개발권을 갖는 국정교과서는 없다.

미국은 전국적인 기준의 교과과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에서 각기 교육과정의 대강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지방 학구에서는 학구내의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는 주나 학구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 또한 출판사는 각 주 또는 학구에서 어떤 교과서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의 공통점 등을 분석·검토한다. 많은 출판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또는 플로리다 등 큰 시장의 주나 학구의 교육과정을 기준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채택절차를 보면 (1)교과내용기준 및 수행기준 채택 (2)교육과정 제정 (3)교과서 심의회구성 (4)적격 교과서 목록고시 (5)교과서 채택 (6)보급 등의 순서를 거친다.

미국 교과서는 우리나라처럼 학생 개인에게 무상으로 급여하거나 구입하도록 하지 않고,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의 책임 하에 학급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여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대개 5년 내지 7년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교과서는 학생에 1년 단위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교과서 구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대신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고,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하여 무상대여하고 있다.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느 한 학기나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한 권에 보통 2~3개 학년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 과정이 수록되어 필요한 부분만 해당 학기나 학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하나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고, 그 다음은 많이 팔리는 교과서로서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위해 미국 내 저명 출판사에서 행하는 교과서 제작 9단계 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1단계(개념화 단계) : 교육 관계의 연구 동향, 재정 투자 및 건적, 시장 조사, 편집 조사 및 재정 계획 등을 행한다.
- ② 제2단계(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 :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다.
- ③ 제3단계(교육 프로그램 개요 작성 단계) : 교과서 편집자, 저자 및 협조자가 함께 단원(개요)을 개발 작성한다.
- ④ 제4단계(편집 단계) : 저자, 집필자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고, 이것이 편집되면 심의(field test)한 후 다시 편집한다. 이때 디자이너에 의한 도판류 등의 레이아웃이 정해진다.
- ⑤ 제5단계(제작 단계) : 교과서의 내용을 조판한다. 삽화, 지도, 도표 등의 원판이 제작된다.
- ⑥ 제6단계(인쇄, 제책 단계) : 인쇄, 제책 기준에 따른다.
- ⑦ 제7단계(시장 조사와 판매단계) : 학교 측 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또는 전시회에 출품, 전시한다.
- ⑧ 제8단계(출판 후 조사 연구의 단계) : 출판사는 교사가 새 교과서를 가지고 새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수·학습할 때 전문적 협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니터 한다.
- ⑨ 제9단계(개정 등 단계) : 시장 동향, 연구 성과 등에 따라 체제를 바꾸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감한다. 피드백 해서 제1단계로 넘어간다.

위 1~9단계 과정에서 주로 외적 체제와 관련된 것은 제3단계에서 제6단계까지로 볼 수 있다. 물론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작용 단계라고는 볼 수 없다. 외적 체제에 대해서는 출판사 나름대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의 규제 사항이 없다. 따라서 교과서의 제작이 검인정제의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성 있는 제작이 가능하다.

미국교과서제도의 특이한 점은 주 교육위가 선정한 교과서에 대하여 시민이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진시 본은 지역 학습 자료센터에서 시민에게 공개되며 교과서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주 교육위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최종 선정에 앞서 3회의 공청회를 갖는데, 각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위원회 회의, 합동교육과정위원회 회의, 주 교육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최한다.

따라서 공급자의 관점으로만 교과서가 선정,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도

고려되어서, 좀 더 객관적이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과서 선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도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3) 일본의 교과서 제도

일본에서 교과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있어서 교과과정의 구성에 맞게 배열되어, 교과서의 주된 교재로서 수업에 사용하는 아동 또는 생도용 도서’를 말한다.

교과서는 교과서 검정, 채택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고,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학습 단위 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중, 고등학교의 주요 교과는 과목별, 학년별로, 선택과목 등은 과목별로 만들어지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주요 교과와 선택과목은 과목별, 학년별 상·하권으로, 일부 교과와 선택과목의 경우는 학년별로 만들어진다.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들은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용 도서검정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교과서를 연구, 개발한다. 교과서의 검정은 문부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는데 그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이 중립적이며 공정한지, 내용에 틀린 점이나 부정확한 것은 없는지,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쉽지는 않은지 하는 관점 등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과목별로 검정결과 합격시킬 교과서의 숫자를 미리 정하고 우수한 교과서만을 합격시키는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극히 일부분의 수정만을 거쳐 검정절차에 합격하게 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편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용까지는 대개 4년이나 되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첫해에는 교과서(건본)를 제작하고, 둘째 해는 문부성의 검정을 받으며, 셋째 해는 각 지방교육위원회 등에서 선정·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네 번째 해부터 비로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은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검정과 둘러싼 잡음이 전혀 없다.

검정에 합격한 후 교과서를 실제로 발행하려는 출판사는 매년 문부대신이 지정하는 시기에 발행하려는 교과서의 제목을 문부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부대신은 출판사가 제출한 교과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 이하 각급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각급 교육위원회는 그 목록을 다시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교과서의 채택권한은 기본적으로는 학교단위로 분산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인 소·중

학교는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관내 소·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선정에 관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국·사립 학교장에 대해 적절히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조언 시 교과용도서 선정심의회 의견은 들어야 한다. 각급 교육위원회는 시·군 또는 시·군을 몇 개합한 지역을 ‘교과용도서 채택지구’로 설정하여 지구별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한다.

이 때 각 지구에 과목별로 대개 5인의 교과서 조사원을 둔다.

또한, 학교장은 채택희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교과서 조사원의 조사결과와 각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학교장의 투표로 결정하거나,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로 한 조사원의 비교분석결과를 수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번 채택된 교과서는 4년 간 계속 사용하게 되며, 4년마다 다시 선정절차를 거친다. 소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각 교과서 채택지구별로 결정된 내용이 각급 교육위원회를 거쳐 문부성으로 보고 되며, 문부성은 이를 각 출판사에 통보하여 교과서를 생산토록 한다. 소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 대금을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교과서의 가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살펴본바와 같이 한·미·일 세 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검인정제도라는 큰 틀은 유사하나, 실제 심의 과정에 있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외형체제의 세부 사항까지 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교과서를 심의하는데 있어 교육과정에 맞춘 내용과 조직방향 등의 커다란 골격은 엄격히 심사하되 판형과 편집디자인 등 세부사항의 심의는 완화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자에 있어서도 교육부등 정부기관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분석과 개선방안

1. 미술교과서의 외형체제 분석

정부의 현행 교과서 정책은, 학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반드시 교과용 도서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5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7차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에서도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 지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과서가 학습 자료제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외에 청소년을 위한 미술학습 자료로 출판된 도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도 외에서든 미술교과를 학습하는데 있어 교과서의 역할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외형체제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에 어울리지 않는 그릇에 담으면 보기도 싫고 먹기도 꺼려지는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을 잘 선정하고 조직했다 하더라도 외형체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전달 효과가 저하되고, 전달 효과가 저하되면 매력이 없고 주의를 끌 수 없는 교과서가 되어 학습에 부적절한 도서가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매력적인 편집체제와 적절한 도판의 사용 등, 외적체제를 개선하는 것 자체로 학생들의 지적호기심과 동기유발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특히,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 시각적 요소가 강한 미술교과서의 특성상 외형체제에 대한 중요성은 내용조직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겠다.

1) 한·미·일 미술 교과서 집필자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의 집필자는 <표 2>와 같다.

<표 2> 한·미·일 미술 교과서 집필자 비교분석

구분	저자	집필인원	감수인원	출판사명
한국	노영자, 이인숙	2	·	교학사
미국	Gene Mittler, Rosalind Ragans	2	16	Glencoe/McGraw-Hill
일본	花篤實 외	34	3	日本文教出版

9)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1조(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 금지) 이 영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는 이를 수업중 사용하지 못한다.

<표2>를 보면 미국은 한국과 같이 집필자 수는 2명이지만 감수인원이 많고, 미술교육가, 교사, 각 파트별 전문가 등 미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집자문위원(Editorial Consultants)과 감수자(Contributors/Reviewers)로 나뉘어져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집필자의 이름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전공이나 직업을 알 수는 없지만 집필자의 수가 무려 34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미술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자가 참여했으리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미술교육에서 교과서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수준 높은 미술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미술 및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연구·제작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외형 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는 외형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규격이고, 교과서의 지질은 3국 모두 아트지로 질적인 차이는 크게 느낄 수 없으나 도판 인쇄의 질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미국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면의 여백활용은 미국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일본은 거의 짝 차게 활용하여 조금 답답해 보인다.

교과서 본문에 사용된 서체의 숫자와 서체에 사용된 색상 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하나의 책에 너무 여러 가지 서체를 사용하면 혼란스럽고 가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사용된 서체의 수가 무려 10가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편집디자인으로 인해 적절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서체나 서체의 색상을 2, 3가지로 제한하여 단순하게 사용하였는데 지루하다기보다는 깔끔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서체를 사용하였으나 각 서체의 차별성이 떨어져, 각 서체를 사용한 의도나 효과가 미미하게 드러나 보인다.

교과서의 쪽수는 미국 교과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 이상 많은 것을 보면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일 미술교과서의 체제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미·일 미술교과서의 체제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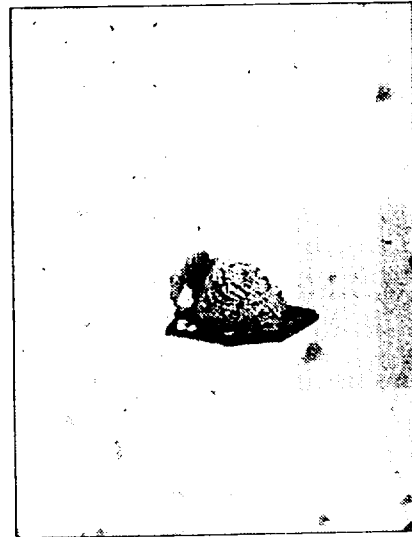
항목	한국 <교학사>	미국 <Glencoe/McGraw-Hill>	일본 日本文教出版
판형	188×258	221×285	183×257
쪽수	81	368	43
지질	아트지	아트지	아트지
여백활용	위 17mm 아래 17mm 좌 11mm 우 11mm	위 17mm 아래 18mm 좌 13mm 우 13mm	위 15mm 아래 17mm 좌 15mm 우 15mm
표지속성	소프트커버	하드커버	소프트커버
표지	학생작품 사진	푸른바탕에 작품사진과 재료용구사진	좌측상단에 제목, 흰색바탕에 작품사진
뒷표지	앞면작품사진 축소하여 수록	재료용구사진	상측 감상단원 처리, 하측에 저작자 및 각종 정보
사용된 서체수	6	10	3
서체의 색상수	3	7	2

다음은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앞표지, 뒤표지를 비교한 도판이다.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과서 앞표지, 뒤표지 비교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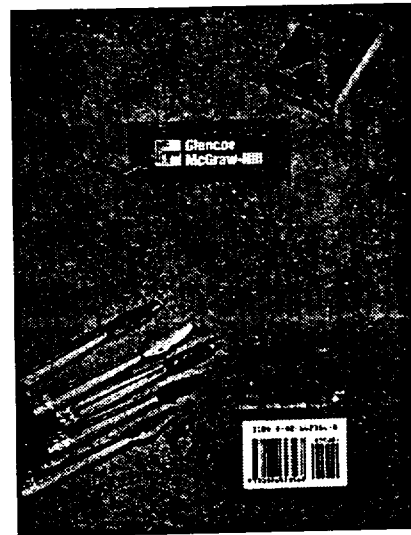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미술교과서 앞표지



<그림 2> 한국 미술교과서 뒤표지



<그림 3> 미국 미술교과서 앞표지



<그림 4> 미국 미술교과서 뒤표지



<그림 10> 일본 미술교과서 앞표지



<그림 9> 일본 미술교과서 뒤표지

세 나라의 교과서 표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학생의 작품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였고, 미국은 미술작품과 재료용구 사진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일본은 작가의 미술작품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세 나라 교과서의 표지 중 주목할 점은 일본 교과서 뒤표지이다. 일본 교과서는 앞표지뿐만 아니라 뒤표지에도 미술작품을 여러 점 실어놓아 학생들이 감상을 함과 더불어 흥미를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제목을 보면 미국은 'Exploring Art', 'A World of Image' 등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미술'이라고 되어있다. 미술교과시간에 미술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상 굳이 '미술'이라는 딱딱한 제목을 교과서에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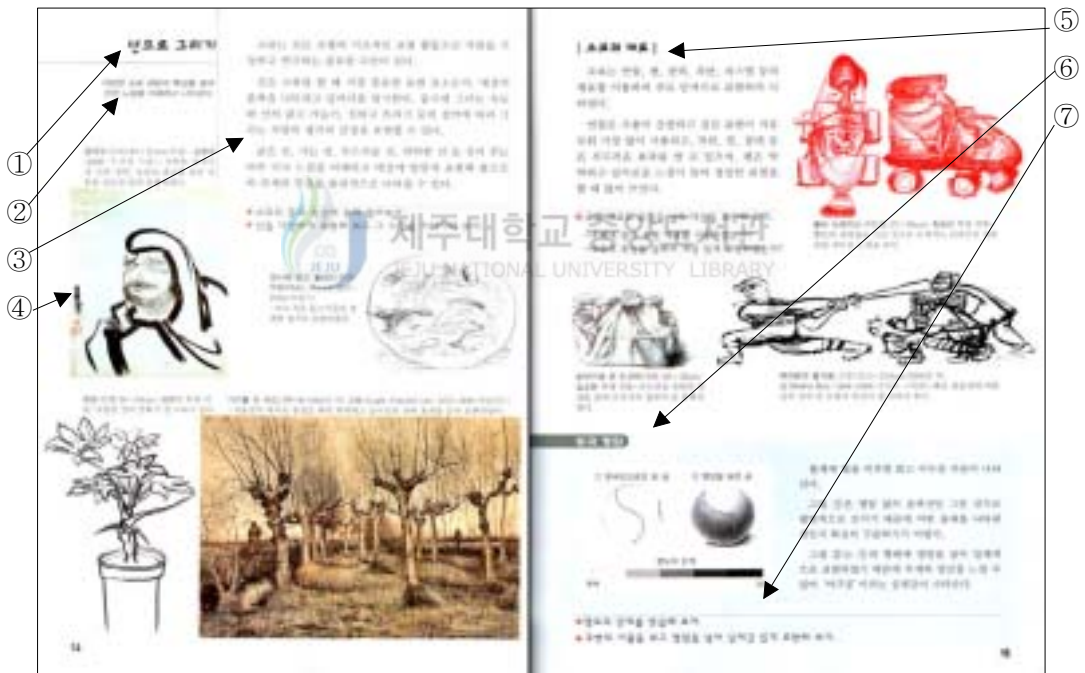
3) 편집체제

각 나라별 미술 교과서의 편집체제를 살펴보면, 우선 제목 문장의 처리를 미국과 일본은 페이지 시작부분에 한 줄 전체를 사용하였고 글자의 크기도 25포인트 이상으로 큼직하게 처리하였다. 일본은 제목부분을 그라데이션(Gradation)된 박스(Box)로 처리하여 아래 학습내용 단락과의 차별을 주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이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위치해 있어 옆의 도입문장과 차별화가 적고 집

중도도 떨어진다. 제목의 글씨 크기를 크게 하여 시원해 보이는 편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판의 배치를 보면 미국은 주제와 관련된 한, 두개의 도판만을 사용하여 대체적으로 명료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도판의 모양이 사각형으로만 되어 있어 정적인 느낌도 있다. 일본은 도판의 배치에 있어 색상과 크기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며, 도판의 모양도 사각형뿐만 아니라 타원형 등도 사용하여 화면 구성이 역동적이다. 우리나라는 도판의 크기가 비슷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대비와 강조가 약하고 산만해 보인다. 도판의 색상과 크기를 고려하여 주제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다음은 각 나라별 미술 교과서의 편집체제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1> 한국 교과서의 편집체제



- ①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 ② 목표를 제시하는 도입 문장 ③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교수문장 ④ 참고작품 및 감상 작품 ⑤ 주제 안의 소제목 ⑥ 주제와 관련된 보충 자료 ⑦ 목표 활동 제시


<그림 8> 미국교과서의 편집체제

LESSON 4

Making a Collage

The work of art by Lon Chaney is made with handmade paper. Making a collage from fabric, then an animal specimen, is another material good for a collage. The students move to the New Britain desert to learn the story (see Figure 1.10).

WHAT YOU WILL LEARN
 How to create a collage using a variety of fabric and found materials. You will create a small artwork that you find in your own house. You will use drawings of insects and other small creatures from your collection (see Figure 1.11).



WHAT YOU WILL NEED

- Fabric and cloth paper
- Small pieces of white paper
- Watercolor markers
- Natural found materials such as leaves, twigs, pebbles, dirt, rock, shells, grasses
- White glue
- White paper, 9 x 12 cm (3 1/2 x 5 inches)

WHAT YOU WILL DO

1. Begin with your classroom's collection of what insects, spiders, lizards, and birds you might find. Consider their size. Look for pictures of these creatures in the library, and on science books. Note the differences in body structure between insect and birds.
2. Collect more if materials from your own home collection. Look for buttons, twigs, grasses, twigs, dirt and sand, shells, flowers, and pebbles. If you have an old shirt, the fibers might have and brown and white to give away.
3. Take water through sheets of the two rows. Then make brushes of twigs with pencil or white paper of the creature for your work. Glue in buttons and use your creation to connect with the background of the book or the book. Create them with watercolor markers.
4. Arrange your found objects to tell the creature you draw. When you are done, find with the composition glue, and display your work. Can you find similar size and differences?

TRY THIS! COMPUTER OPTION

Look through available Clip Art Sites, Internet or Copy the creature and want to use in a collage, use a computer program to make or to create the picture.

According to your design, Add color and texture to blend the creature into the collage or to add contrast. Use Green and Blue. Cut out and arrange the collage with found materials.

WHAT YOU WILL NEED


- Fabric and cloth paper
- Small pieces of white paper
- Watercolor markers
- Natural found materials such as leaves, twigs, pebbles, dirt, rock, shells, grasses
- White glue
- White paper, 9 x 12 cm (3 1/2 x 5 inches)

WHAT YOU WILL DO

1. Begin with your classroom's collection of what insects, spiders, lizards, and birds you might find. Consider their size. Look for pictures of these creatures in the library, and on science books. Note the differences in body structure between insect and birds.
2. Collect more if materials from your own home collection. Look for buttons, twigs, grasses, twigs, dirt and sand, shells, flowers, and pebbles. If you have an old shirt, the fibers might have and brown and white to give away.
3. Take water through sheets of the two rows. Then make brushes of twigs with pencil or white paper of the creature for your work. Glue in buttons and use your creation to connect with the background of the book or the book. Create them with watercolor markers.
4. Arrange your found objects to tell the creature you draw. When you are done, find with the composition glue, and display your work. Can you find similar size and differences?

SAFETY TIP

Make sure to use only ordinary household glue for your collage. Waterproof glue and some glues have poisons in them. These poisons can enter the body through the skin.



TRY THIS! COMPUTER OPTION

Look through available Clip Art Sites, Internet or Copy the creature and want to use in a collage, use a computer program to make or to create the picture.

According to your design, Add color and texture to blend the creature into the collage or to add contrast. Use Green and Blue. Cut out and arrange the collage with found materials.

- ①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 ② 아래 작품을 소개하는 문장 ③ 학습할 내용 소개
 ④ 참고작품 및 감상작품 ⑤ 작품에 필요한 재료 제시 ⑥ 재료 사용시 주의점

<그림 9> 일본교과서의 편집체제



- ①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 ② 목표를 제시하는 도입 문장 ③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교수문장 ④ 참고작품 및 감상작품 ⑤ 작품설명

4) 교과서 쪽수별 도판 수 비교분석

한·미·일 교과서의 쪽수별 도판수를 다음 표<4>, <5>, <6>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참고 도판이 교과서 한 쪽 당 대략 3, 4점정도 실려 있고, 미국은 한 쪽 당 1점이 실린 비율이 가장 높다. 일본은 보통 2~6점이 실려 있는데 5, 6점이 실린 비율이 각각 17.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장당 도판수가 비교적 많다. 미국교과서는 도판보다는 내용에 비중이 많고, 일본 교과서는 내용보다는 도판 위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장당 2~6점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보다는 장당 도판수가 적으나 미국보다는 훨씬 많다. 도판에 대한 시각적 집중도를 고려할 때 한 장에 너무 많은 도판을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금보다 쪽수별 도판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4> 한국

구분 \ 도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쪽 수	2	9	17	13	7	7	1	3	1	2	62
%	3.2	14.5	27.4	21	11.3	12	1.6	4.8	1.6	3.2	100

<표5> 미국

구분 \ 도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계
쪽 수	50	166	45	4	2	267
%	18.7	62.2	16.9	1.5	0.8	100

<표6> 일본

구분 \ 도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쪽 수	0	6	7	7	7	7	2	3	1	1	39
%	0	15.3	17.9	17.9	17.9	17.9	5.1	7.7	2.5	2.5	100

2. 미술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분석

한·미·일 미술교과서의 내용 및 도판, 표현재료 및 용구에 대한 비교분석에 앞서 각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전개하였는가를 목차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충하여야 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각 나라 미술교과서에 예시된 도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 나라의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자기 나라의 미술품과 다른 나라의 미술품의 예시비율 및 작가 작품과 학생작품의 예시비율을 조사하였다. 넷째, 세 나라의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도판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 편중되어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새롭고 안전한 재료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거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각 교과서의 내용 구성체제 비교분석

(1) 한국의 미술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각 영역별로 세분화 해서 살펴보면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에서 조형으로, 생활 속의 미술, 자연과 생활 속의 색채 등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 영역에서는 우리학급 함께 꾸미기, 선으로 그리기, 다양한 표현기법, 판으로 찍기, 정물의 표현,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생활 주변의 풍경, 수묵으로 그리기, 일상생활의 표현, 꿈과 상상의 세계,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입체로 나타내기, 색의 기본, 형태의 관찰과 단순화, 문자의 역할을 하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생활 용품 만들기, 흙과 불의 조화, 생활 속의 서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상영역은 보는 즐거움(작품감상),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으로 짜여져 있다.

각 하위영역마다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문장과 질문이 들어있어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토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뒷면에는 부록으로 ‘학습정리’ 및 ‘인터넷에서 박물관·미술관 찾기’, ‘교과서에 나온 미술 인명사전’이라는 내용으로 꾸며져서 학생들의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 ‘학습 정리’에는 미술영역을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감상의 6개 단락으로 나뉘서 주요내용의 요점 정리 및 재료와 용구에 대해 도판을 곁들여 설명하

10) 노영자, 이인숙(2000), 「중학교 미술 1」, 교학사

고 있다. '인터넷에서 박물관·미술관 찾기'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수록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미국의 미술 교과서

미국 미술교과서는 15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¹¹⁾ 각 단원을 살펴보면, 미술의 세계(Art in your world), 미술 즐기기(Enjoying art), 미술매체 탐색하기(Exploring Art Media), 미술의 요소(The Elements of Art), 미술의 원리(The Principles of Art), 미술 비평(You, the Art Critic), 미술의 역사(Art History and You), 소묘(Drawing), 판화(Printmaking), 페인팅(Painting),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조소(Sculpture), 공예(Crafts), 건축(Architecture), 사진·영화·비디오 그리고 컴퓨터(Photography, Film, Video, and Computer)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15개의 각 단원아래 4~8개의 소단원을 두어 총 81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단원 별로 도입부분에 학습목표와 배울 미술용어를 정리해 놓았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포트폴리오 아이디어(Portfolio Idea)를 제시한 것도 특이한 사항인데 미국 중학교에서 미술의 평가방식이 포트폴리오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는 배운 단원에 대한 형성평가가 제시되어 있고, 배운 내용을 수학, 과학, 국어, 역사 등 다른 교과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인터넷 학습활동(Internet Activity)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 소단원마다 배워야 할 내용과 어떤 학습활동을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제시하고 있고, 학습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안전한 사용법(Safety Tip)을 매우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다. 또한 미술실에서 할 수 있는 표현활동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표현활동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의 뒷부분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와 같이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은 4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용어해설과 색인도 수록되어 있다. 부록의 4개 항목은 첫 번째로 미술 용구 및 재료의 사용법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도판에 수록된 예술가들의 프로필이 소개되어 있다. 세 번째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를 망라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교실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표현활동을 추가로 제시하여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심도 있게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비슷하지만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항목은 따로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찾

11) Gene Mittler, Rosalind Ragans(1992), 「Exploring Art」, Glencoe/McGraw-Hill

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미술이라는 교과영역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세
히 다루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

(3) 일본의 미술 교과서

일본 미술교과서는 ‘오리엔테이션’, ‘그림과 조각’, ‘디자인, 공예’, ‘감상’ 등 크게 4개
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¹²⁾ ‘오리엔테이션’ 영역에는 미술과의 만남이라는 하위영역
이 있고, ‘그림과 조각’은 스케치의 즐거움, 보는 것의 아름다움, 느낀 그대로, 마음의
정경,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 판 표현의 즐거움, 조각의 즐거움 등이 있다. ‘디자인, 공
예’ 영역에는 흙과 빛과 나타나는 형상, 즐거운 마음의 조각, 신기한 시각의 세계, 즐거
운 메시지, 상냥한 디자인, 색의 퍼짐과 색의 매력, 자연을 살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감상’영역은 네 점의 둘레, 기쁨과 슬픔의 형태, 미술작품과의 만남, 그림 그리는
기쁨·세계의 중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제목 옆에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있고 밑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작가
의 말’이라는 코너를 통해 참고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한 게 특징 할만한 점이다.

2) 교과서 단원별 학습내용 비교분석

학교 미술 교육의 내용은 잘 짜여진 교육 과정을 확립하여 해당 연령층에 적합한 개
념, 발상 및 지식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¹³⁾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학습내용을 <표7>을 통해 살펴보면 미적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대 영역 하에 소단원
들이 구성되어있다.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며 개성을 중요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대 미술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처럼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등의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자유롭게 영역을 넘나드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는 현실¹⁴⁾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과
서의 구성방식이 구체적인 미술 장르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 하는 것 보다는 바람
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작가의 작품은 교과
서에 많이 실려 있긴 하지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현대적인 표현기법이나 소재를
소개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대신 미국과 일본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지 않은 서예영역
을 6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이는 현대미술의 흐름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계승을 위한 목적으로 보여 진다.

12) 花篤實 외(2003), 「中學校 美術1」, 日本文交出版

13) 교육인적자원부(1999), 전계서, p.167

14) 상계서, p.172

표현영역에서는 ‘우리 학급 함께 꾸미기’,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등 주제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지만 참고도판을 보면 회화적 표현의 도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표현매체를 사용한 작품을 참고도판으로 선정하여 회화적 표현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다. 감상영역을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미술사적인 방대한 내용을 단 3페이지에 담다 보니 너무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는 학습적인 내용이 적고 작품사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재로의 동기유발을 위한 발문이 딱딱하고 지식적인 어휘위주로 쓰여 있는 편이고, 작품 제작과정과 용구·기법에 대한 사진이 실려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표 7 > 한국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단원별 학습내용

영역	단원	학습내용
미적체험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특징을 찾아보자
	자연에서 조형으로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찾아 표현 한다
	생활 속의 미술	생활 속에서 미술의 활용성을 찾아본다
	자연과 생활 속의 색채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색을 알아보고 생활에 활용해본다
표현	우리 학급 함께 꾸미기	우리 학급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기
	선으로 그리기 -소묘의 재료	다양한 소묘재료의 특성을 살려 선의 느낌을 이해하고 나타낸다
	다양한 표현 기법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판으로 찍기 -볼록판화	판의 특징을 이해하고 볼록판화의 효과를 살려 제작한다.
	정물의 표현	주변의 정물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고 형과 색의 특징을 살려 표현한다.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 세계를 넓힌다.
	생활주변의 풍경	주위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수묵으로 그리기	수묵화의 재료 및 용구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 한다
	일상생활의 표현	생활에서 경험했던 일 중 인상에 남는 장면을 표현 한다

영역	단원	학습내용
표현	꿈과 상상의 세계	꿈, 상상 등 다양한 기법으로 개성 있게 표현 한다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주변의 동물들을 관찰하여 형과 색채의 특징이 나타나게 표현한다.
	입체로 나타내기	입체작품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살려 표현 한다
	색의 기본	색의 기본을 이해하고 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 한다
	형태의 관찰과 단순화	자연의 특징을 단순화하고 변형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 한다
	문자의 역할을 하는 그림	문자를 아름답게 꾸며 생활에 활용 한다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뜻을 알고 활용 방법을 찾아본다
	생활 용품 만들기	재료의 특성과 쓸모를 생각하여 일용품을 만든다
	흙과 불의 조화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이해하고 만들어본다
	생활 속의 서예	서예의 용구 및 사용법을 알고 한글정자와 진각으로 표현 한다
감상	생활주변의 풍경	주위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보는 즐거움	작품의 주제와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	시대별, 양식별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미국 미술교과서의 학습내용은 <표 8>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국 미술교과서는 첫 세 단원에서는 ‘미술매체 탐색하기’등 미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단원에서는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미술비평’과 ‘미술사’ 단원 뒤에 ‘판화’, ‘조각’등 미술의 영역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각 단원의 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표현을 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미술매체와 조형요소와 원리를 익히도록 한 반면, 미국 교과서는 미술 매체와 조형요소·원리에 대해 예시작품과 용어의 설명 등을 통해 각각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미국 교과서에는 ‘건축’을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한 것이 특이한 점이고, ‘사진·영화·비디오 그리고 컴퓨터’라는 단원을 통해 최근 들어 많이 쓰이는 예술매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표 8> 미국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단원별 학습내용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내용
미술의 세계(Art in your world)	미술 경험하기(The Art Experience) 미술가와 그의 작품 탐색하기(Examining Art Works) 미술가와 그들의 창의력(Artists and Ideas) 콜라주 만들어보기(Making a Collage) 수학과 연결학습(Connections Math)
미술즐기기(Enjoying art)	미술이해하기(Understanding Art) 미학에 대한 소개(Aesthetics) 종이 찢어 내 얼굴 표현하기(Torn Paper Face) 국어와 연결학습(Connections Language Arts)
미술매체 탐색하기(Exploring Art Media)	소묘(Drawing) 판화(Printing making) 페인팅(Painting) 색칠재료 경험하기(Experimenting with Pigment) 조각(Sculpture) 여러 가지 재료 혼합하여 창작하기(Creating with Mixed Media) 사회와 연결학습(Connections Social Studies)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내용
미술의 요소(The Elements of Art)	미술의 언어(The Language of Art) 색(Color) 배색(Using Color Combinations) 선(Line) 형상과 공간(Shape, Form, and Space) 종이조각(Paper Sculpture Forms) 질감(Texture) 추상적인 풍경 그려보기(Painting a Landscape) 수학과 연결학습(Connections Math)
미술의 원리(The Principles of Art)	디자인의 언어(The Language of Design) 비격식적 균형의 풍경화(Informal Balance Landscape) 다양성, 조화, 강조와 균형(Variety, Harmony, Emphasis and Proportion) 조형의 원리를 이용한 그림(Painting Using the Principles) 동세와 율동감(Movement and Rhythm) 시각적 동세의 창작(Creating Visual Movement) 미술의 통일성(Unity in Art) 사회와 연결학습(Connections Social Studies)
미술비평 (You, the Art Critic)	작품 묘사(Describing Art Works) 묘사기법(Using Descriptive Techniques) 작품 분석(Analyzing Art Works) 작품 해석(Interpreting Art Works) 무드 초크 페인팅(Mood Chalk Painting) 작품 판단하기(Judging Art Works) 미술비평 활용하기(Using Art Criticism) 음악과 연결학습(Connections music)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내용
미술의 역사(Art History and You)	<p>인물, 시간, 장소 묘사(Describing-Who, When, and Where)</p> <p>다양한 표현으로 자화상 그리기(Making a Mixed Media Self-Portrait)</p> <p>미술 스타일 분석하기(Analyzing Artistic Style)</p> <p>야수와 작품같이 표현해보기(Painting in the Fauve Style)</p> <p>시간과 장소를 미술로 해석(Interpreting Time and Place)</p> <p>시간과 장소에 대한 콜라주(Time and Place Collage)</p> <p>역사적 사건에 대한 미술의 해석(Judging Historical Importance)</p> <p>사회와 연결 학습(Connections Social Studies)</p>
소묘(Drawing)	<p>소묘의 세계(The Art of Drawing)</p> <p>동작 그리기(Gesture Drawing)</p> <p>선묘(Contour Drawing)</p> <p>조형작품 사전 스케치(Presentation Drawing)</p> <p>정글을 상상하여 그려보기(Fantasy Jungle)</p> <p>산업미술과 연결 학습(Connections Industrial arts)</p>
판화(Printmaking)	<p>판화의 세계(The Art of Printmaking)</p> <p>판화심화학습(More About Printmaking)</p> <p>단색판화(Monoprints)</p> <p>풀을 이용한 판화제작하기(Glue Prints)</p> <p>리놀륨판화 제작하기(Linoleum Block Prints)</p> <p>블록판화 제작하기(Cardboard Relief Prints)</p> <p>과학과 연결 학습(Connections Science)</p>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내용
페인팅(Painting)	페인팅 개관(The Art of Painting) 수채화 제작하기(Watercolor Painting) 비구상화 제작하기(Non-objective Painting) 표현적인 회화 제작하기(Expressive Painting) 과학과 연결학습(Connections Science)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개관(The Art of Graphic Design) 로고 디자인하기(Designing a Logo) 만화 그리기(Drawing a Comic Strip) 포스터 만들기(Designing a Poster) 삽화 그리기(Illustating a Story) 국어와 연결학습(Connections Language Arts)
조소(Sculpture)	조소 개관(The Art of Sculpture) 석고 뜨기(Carving a Plaster Relief) 점토로 만들기(Modeling in Clay) 추상적인 조형물 만들기(Abstract Sculpture) 과학과 연결학습(Connections Science)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내용
공예(Crafts)	<p>공예의 세계(The Art of Crafts)</p> <p>점토로 그릇만들기(Clay Bowl)</p> <p>점토조각으로 공예품만들기(Slab Container)</p> <p>직물 짜기(Making a Weaving)</p> <p>보석공예(Jewelry)</p> <p>국어와 연결학습(Connections Language Arts)</p>
건축(Architecture)	<p>건축의 세계(The Art of Architecture)</p> <p>점토로 건물 만들기(Building a Clay Model)</p> <p>실내 공간 디자인하기(Drawing Floor Plans)</p> <p>점토로 건축물 입구 만들기(Clay Entrance Relief)</p> <p>지리와 연결학습(Connections Geography)</p>
<p>사진 · 영화 · 비디오</p> <p>그리고 컴퓨터</p> <p>(Photography, Film, Video, andu Learned)</p>	<p>사건의 세계(The Art of Photography)</p> <p>포토 에세이(Photo Essay)</p> <p>영화의 세계(The Art of Film)</p> <p>무성영화 제작하기(Making a Silent Movie)</p> <p>비디오와 컴퓨터(The Art of Video and Computers)</p> <p>멀티미디어 제작하기(Multi-media Presentation)</p>

일본 미술 교과서의 학습내용은 <표 9>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 교과서는 ‘오리엔테이션’, ‘그림과 조각’, ‘디자인과 공예’, ‘감상’이라는 4영역 하에 19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 교과서에는 디자인과 공예영역의 분량이 그림과 조각영역만큼 대등하게 구성되어 우리나라에 비해 디자인과 공예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감상영역 중에서 ‘그림 그리는 기쁨, 세계의 친구들’이라는 단원에서는 일본의 중학생과 같은 또래의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비교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미술교과서의 내용분량이 가장 작고 간단하지만,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잘 되도록 친근한 어휘로 서술되어 있고 참고 도판에서 평면표현과 입체표현이 골고루 적절하게 분배되어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의 미술교육 목표를 살펴보았는데 두 나라의 목표가 유사하였다. 마찬가지로 학습내용도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 우리가 보완해야 할 내용은 보완함과 동시에 좀 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담겨있는 독창적인 학습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9>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단원별 학습내용

영역	단원	학습내용
오리엔테이션	미술과의 만남	미술은 인간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과 조각	스케치의 즐거움	자신과 가까운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인상과 특징을 소중히 하며 스케치 하자
	보는 것의 아름다움	대상을 관찰하고 발견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색과 형으로 나타낸다
	느낀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자유로운 기분으로 나타내자
	마음의 정경	아름다운 풍경과의 만남으로 감동한 생각을 그림과 입체로 나타내보자
	마음을 뺏는 이미지	주위의 사물 중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를 발견하고 그 형태를 살려서 나타내보자
	관표현의 즐거움	관에 의한 표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효과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보자
	조각의 즐거움	대상의 아름다움과 그 느낌을 조각에 나타내본다
디자인과 공예	흙과 빛을 형성해내는 형태	흙의 성질을 살려서 성형과 과적의 방법을 공부해서 구워보자
	즐거운 마음의 조형	즐거운 기분을 살려서 재미있는 조형작품을 만들자
	신기한 시각의 세계	신기한 시각의 효과를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보자
	즐거운 메시지	그림과 문자를 배워서 전하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상냥한 디자인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과 조건을 생각해서 쉽고 쾌적한 디자인을 하자

영역	단원	학습내용
디자인과 공예	색의 퍼짐과 색의 매력	색채의 성질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표현해본 후, 생활에 적용해 본다
	자연을 살린다	자연의 다양한 재료와 그 색과 형을 살려 조형해보자
감상	4점의 돌레	개성이 풍부한 네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껴보자
	기쁨과 슬픔의 형태	그림과 조각에 표현된 감정표현의 풍부함을 맛보자
	미술작품과의 만남	우리주위의 미술관을 활용해서 실제 미술작품의 매력과 박력을 맛보자
	그림 그리는 기쁨, 세계의 친구들	다른 풍토와 문화에서 생긴 표현의 풍부함과 매력을 맛보자



3) 교과서 참고 도판 비교 분석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주된 내용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도판이다.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색채에 대한 설명이나 제작과정, 재료, 용구의 소개 등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 보다 직접 사진이나 그림 등의 도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미술교과의 특성상, 다른 교과서처럼 수많은 언어적 설명이 글자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판이 엮어져 있는 것이 미술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등장하는 도판 하나하나가 풍부한 의미를 산출하는 텍스트(Text)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술교과서에서 도판으로 설명되는 표현방법과 재료, 용구 등의 사용이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표현활동의 표준이자 모델(Model)이 되기 때문에 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과서에 사용될 도판의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미·일 미술교과서의 참고도판 수는 <표10>, <표11>, <표12>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세 나라의 참고도판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한국이 총 도판수가 299개로 가장 많고 미국은 274개 인데 총 267페이지라는 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일본

은 180개로 가장 적지만 총 페이지 수(43)에 비하면 페이지 당 도판 수는 많은 편이다. 한국과 일본교과서는 한 페이지에 많은 수의 도판이 실리다보니 도판의 크기가 작아져서 좀더 자세히 관찰 또는 감상할 수 없고 편집구성이 산만하게 느껴진다.

세 나라의 참고작품 예시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에는 작가와 학생의 작품의 비율이 반반으로 실려 있고, 우리나라 작가보다 외국작가의 작품이 더 많이 실려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작가의 작품이 학생작품보다 훨씬 많이 실려 있고 자국 작가의 작품이 외국작가 작품보다 많이 실려 있다. 일본은 학생작품이 작가의 작품보다 많이 실려 있다.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예시하여 감상을 위주로 하는 경우, 미술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는 좋은 점이 있으나, 해당 연령의 학생이 지닌 다양한 수준을 배려하기 어려워 참여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을 지니고 학생작품이 많이 예시될 경우, 교사의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도 목표가 자연스럽게 제시되게 되므로 교수 학습에는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이 제시된 학생작품을 모방하도록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할 경우에는 소기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닌다.¹⁵⁾ 따라서 기성 작가의 작품과 학생작품의 비율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나라별로 참고작품 도판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디자인과 공예분야를 다루는 단원에서 기성 작가의 작품이 거의 없고 오히려 조선시대의 민화, 백자, 고려시대의 청자 등 우리나라의 옛 유물들이 도판으로 등장한다. 디자인분야에 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만한 작품이 필요한데,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 디자인분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삽입하여야 한다. 미국은 참고도판으로 사용된 학생작품수가 매우 적은데, 이는 보다 먼 시기에 이루게 될 결과를 학생들이 감상함으로써 극한 경쟁이나 모방 심리의 발로를 차단하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¹⁶⁾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학생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다른 나라 학생의 학습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15) 박은덕(2000), 「한국, 미국, 일본의 초등학교 미술과 교과서 비교 연구」, 미술교육논집, p.157

16) 상계서, p156

<표 10> 한국 미술 교과서의 참고작품 도판 수

단 원	도판 수			
	한국작가	외국작가	학생	기타
자연의 아름다움	0	0	0	14
자연에서 조형으로	1	3	2	8
생활 속의 미술	1	1	1	7
자연과 생활 속의 색채	2	0	0	6
우리 학급 함께 꾸미기	0	0	0	8
선으로 그리기	1	3	3	3
다양한 표현 기법	0	2	2	8
판으로 찍기	1	0	4	1
정물의 표현	2	4	3	15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0	2	2	2
생활주변의 풍경	2	2	2	2
수묵으로 그리기	2	1	2	10
일상생활의 표현	3	1	2	0

단 원	도 판 수			
	한국작가	외국작가	한국학생	기타
꿈과 상상의 세계	2	1	3	4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1	1	3	2
입체로 나타내기	2	7	7	7
색의 기본	0	1	1	13
형태의 관찰과 단순화	0	0	5	7
문자의 역할을 하는 그림	0	0	4	7
일러스트레이션	0	1	6	7
생활 용품 만들기	0	0	6	3
흑과白的 조화	0	0	2	5
생활 속의 서예	0	0	1	25
보는 즐거움 (작품감상)	0	0	2	3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	3	10	0	6
계	23	40	63	173

<표11> 미국 미술 교과서의 참고작품 도판 수

단 원	도판 수			
	미국작가	외국작가	학생	기타
미술의 세계(Art in your world)	7	4	1	1
미술 즐기기(Enjoying art)	10	0	1	0
미술매체탐색(Exploring Art Media)	8	5	6	8
미술의 요소(The Elements of Art)	5	7	4	14
미술의 원리(The Principles of Art)	5	10	2	2
미술비평(You, the Art Critic)	7	7	2	0
미술의 역사(Art History and You)	5	15	1	1
소묘(Drawing)	1	10	5	2
판화(Printmaking)	3	5	5	6
페인팅(Painting)	6	5	3	0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4	3	5	6
조소(Sculpture)	2	5	2	3
공예(Crafts)	13	0	2	7
건축(Architecture)	2	0	0	13
사진·영화·비디오 그리고 컴퓨터 (Photography, Film, Video, and Computer)	7	2	1	9
계	85	77	40	72

<표12> 일본 미술 교과서의 참고작품 도판 수

단 원	도판 수			
	일본작가	외국작가	학생	기타
미술과의 만남	0	4	0	0
스케치의 즐거움	7	3	6	0
보는 것의 아름다움	1	0	5	0
느낀 그대로	1	1	3	0
마음의 정경	0	2	4	0
마음을 뺏는 이미지	2	2	2	0
판표현의 즐거움	3	0	2	3
조각의 즐거움	2	0	8	2
흙과 빛을 형성해내는 형태	1	0	4	4
즐거운 마음의 조형	1	0	8	1
신기한 시각의 세계	2	1	4	5
즐거운 메시지	1	1	7	12
상냥한 디자인	0	4	2	3
색의 퍼짐과 색의 매력	1	2	0	20
자연을 살린다	2	1	12	5
4점의 둘레	1	4	0	0
기쁨과 슬픔의 형태	1	4	0	0
미술작품과의 만남	1	1	2	3
그림 그리는 기쁨, 세계의 친구들	0	0	6(외국학생)	0
합계	27	30	75	58

4)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 및 용구 비교분석

현대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소재의 무한한 확장이다. 화가의 캔버스(Canvas), 조각가의 돌이나 금속이라는 한정된 소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그 작품을 창조하는 소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작품의 형태가 재료의 본래 속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에서 자유로이 표현되는 현대 미술의 흐름처럼 현대 미술교육에서도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¹⁷⁾

한국, 미국 및 일본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는 <표13>, <표14>, <표15>에 각각 정리하였다. 여기서 미국 교과서에는 단원마다 배워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표현재료와 용구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참조로 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교과서에는 특별히 어떤 재료와 용구를 사용해야 될 지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도판 중 학생작품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음을 밝힌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필을 스케치(Sketch)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재료는 연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별로는 우리나라는 수채물감과 크레파스(Crapas), 색연필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수묵화와 서예의 재료사용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신문지와 단추, 우유팩, 빈 캔 등 재활용 재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입체표현 재료 중 철사의 사용이 빈번한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철사의 구입과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를 보면 주로 포스터물감으로 제한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을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표현 매체의 사용이 요구된다.

미국은 불투명 물감인 템페라(Tempera)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초크(Chalk), 크레용(Crayon), 마커(Marker), 오일파스텔(Oil Pastel) 등 다양한 재료가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 표현 용구도 붓,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폴리우레탄 스프레이(Polyuretan Spray) 등 여러 가지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즉석 사진기, 캠코더(Camcoder), 컴퓨터(Computer), 비디오(Video)등 멀티미디어(Multimedia) 장치도 표현재료로 사용하는 점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장치들이

17) 이인경(2002), 「교과서의 재료에 관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16

친숙한 매체로서 자리잡혀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고, 우리나라도 컴퓨터나 영상 매체를 사용한 미술활동의 소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또한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눈여겨보아야할 점이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학생은 초크의 사용을 삼가도록 할 것, 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물감을 고르는데 있어서는 성분이 다른 세 가지 종류 중 인체에 무해한 물감은 어느 것인지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평면표현재료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일본은 평면표현재료와 입체표현재료의 비중이 골고루 나타나 있다. 표현재료도 플라스틱(Plastic), 브론즈(Bronz) 등 과감한 재료가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나무나 짚, 돌등 자연적인 재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적인 소재를 접하기 힘든 현대 도시사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표현재료로 여겨진다.

종이류는 세 나라 모두 도화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를 표현재료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재료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다양한 재료와 용구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¹⁸⁾

18) 박은덕(2000), 전개서, p 154

<표 13> 한국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

단 원	표현재료와 용구
자연의 아름다움	.
자연에서 조형으로	포스터물감, 신문지, 잡지, 한지, 철사, 비닐
생활 속의 미술	.
자연과 생활 속의 색채	.
우리 학급 함께 꾸미기	색연필, 사인펜, 도화지, 색지, 한지, 골판지
선으로 그리기	붓펜, 색연필, 목탄, 연필, 콩테, 파스텔
다양한 표현 기법	수채물감, 사진, 나뭇잎, 색종이, 크레파스, 풀, 털실, 단추, 성냥개비
판으로 찍기	고무판, 지판, 롤러, 잉크, 문지르개, 판화용 칼
정물의 표현	수채물감, 종이, 형짚, 아크릴물감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연필, 하드보드지, 도화지
생활주변의 풍경	수채물감, 도화지
수묵으로 그리기	채색용 붓, 화선지, 접시, 먹물, 물통
일상생활의 표현	지점토, 크레파스, 수채물감, 도화지

단 원	표현재료와 용구
꿈과 상상의 세계	수채물감, 크레파스, 신발, 플라스틱, 캔 뚜껑, 장갑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수채물감, 크레파스, 털실, 신문지, 철사, 한지, 고무판
입체로 나타내기	찰흙, 노끈, 스티로폼, 비닐, 소석고, 지점토, 물감, 빈 캔, 플라스틱 병, 철사, 상자, 래커, 건전지, 본드
색의 기본	포스터물감, 도화지
형태의 관찰과 단순화	포스터물감, 도화지, 노끈
문자의 역할을 하는 그림	포스터물감, 펜, 도화지
일러스트레이션	아크릴물감, 파스텔, 비닐, 지점토, 수채물감, 사인펜, 색연필,
생활 용품 만들기	지점토, 형겔, 한지, 우유팩, 털실, 플라스틱, 두꺼운 종이
흙과 불의 조화	찰흙, 주걱
생활 속의 서예	붓, 먹, 벼루, 종이, 서진, 연적
보는 즐거움 (작품감상)	수채물감, 색연필, 색한지, 철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	.

<표 14> 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

단 원	표현재료와 용구
미술의 세계(Art in your world)	연필, 수채마커, 나뭇잎, 꽃잎, 풀, 종이
미술 즐기기(Enjoying art)	연필, 노트, 색종이, 풀, 풀칠용 붓
미술매체탐색(Exploring Art Media)	수채물감, 연필, 색연필, 마커, 잡지, 신문, 벽지조각, 스폰지, 도화지
미술의 요소(The Elements of Art)	연필, 템페라, 붓, 풀, 자, 일러스트 보드지, 하드보드지, 마스크테잎, 종이타월
미술의 원리(The Principles of Art)	연필, 오일파스텔, 초크, 템페라, 마커, 신문, 잡지, 색판지, 노트, 지우개, 가위
미술비평(You, the Art Critic)	연필, 초크, 스케치북, 샌드페이퍼
미술의 역사(Art History and You)	연필, 크레용, 색연필, 마커, 도화지, 잡지, 신문, 포스터보드지, 카드보드지, 깃털, 리본, 조개, 노끈, 털실, 풀, 붓
소묘(Drawing)	연필, 목탄, 크레용, 샤프펜, 펠트펜, 흑연(soft graphite), 오일파스텔
판화(Printmaking)	연필, 잉크, 리놀륨, 크레용, 마커, 카드보드지, 일러스트보드지, 도화지, 상자, 롤러, 비닐, 가위,
페인팅(Painting)	연필, 아크릴물감, 템페라, 수채물감, 초크, 도화지, 두꺼운 종이, 종이타월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연필, 수채마카커, 펠트마커, 색연필, 크레용, 아크릴물감, 잡지, 신문, 하드보드지, 풀, 도화지, 붓, 투명테잎
조소(Sculpture)	연필, 템페라, 사진, 플라스틱그릇, 막대, 파이펜, 클립, 점토, 천, 포크, 사진, 카드보드지, 조각칼,
공예(Crafts)	수채물감, 신문, 옷, 점토, 부서진장난감, 단추, 자, 바늘, 포크, 투명테잎, 노끈, 털실, 못쓰는필름,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건축(Architecture)	연필, 천 조각, 나무조각, 점토, 핀, 자, 조각칼, 포크,
사진·영화·비디오 그리고 컴퓨터 (Photography, Film, Video, and Computer)	즉석카메라, 흑백필름, 노트, 캠코더, 마커, 녹음기, 책, 잡지, 신문, 비디오, 씨디롬, 컴퓨터

<표 15>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와 용구

단원	표현재료와 용구
미술과의 만남	.
스케치의 즐거움	연필, 수채물감, 색연필, 목탄, 도화지
보는 것의 아름다움	수채물감, 붓, 도화지, 연필, 점토
느낀 그대로	아크릴물감, 수채물감, 가공점토, 나무, 막대기, 붓
마음의 정경	연필, 수채물감, 가공점토, 침금
마음을 뺀 이미지	연필, 플라스틱, 깡통, 실
판표현의 즐거움	목판, 조각칼, 잉크
조각의 즐거움	점토, 브론즈, 물감, 조각칼, 석고
흙과 빛을 형성해내는 형태	합판, 점토, 흙, 노끈
즐거운 마음의 조형	나무, 끈, 채색도구,
신기한 시각의 세계	연필, 색칠도구, 도화지, 하드보드지, 자
즐거운 메시지	컴퓨터, 티셔츠, 펜, 색지, 채색도구
상냥한 디자인	연필, 펜, 색연필, 물감, 가공점토, 도화지,
색의 퍼짐과 색의 매력	포스터물감, 붓, 도화지
자연을 살린다	포스터물감, 연필, 자, 마천, 나무, 등나무, 짚, 대나무, 돌, 도화지
4점의 둘레	유채물감, 본견
기쁨과 슬픔의 형태	.
미술작품과의 만남	물감, 색종이, 가위, 자, 펜, 도화지
그림 그리는 기쁨, 세계의 친구들	수채물감, 펠트펜, 색지(외국학생의 표현재료)

3. 우리나라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개선방향

1) 내용구성의 보완과 개선

현행 우리나라 중학교 미술교과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구분은 형식적이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 기존의 영역구분 방식을 탈피하여 좀 더 현실적이면서, 미술의 본질과 기능, 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구성의 개선도 요구된다.¹⁹⁾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 시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중학교 미술교과서는 그 내용이 주로 체험과 표현위주로 치우쳐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있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미술교과서 ‘미술과 생활’²⁰⁾의 단원을 살펴보면, ‘사회 속에서의 미술’, ‘미술과 음악의 만남’, ‘과학과 미술과의 관계 이해’ 등 미술을 사회, 문화와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연계성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²¹⁾ 특히, 미술교과는 시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매체 활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매체 활용을 수업현장에서 다루도록 교사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교과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컴퓨터, 영상매체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현대적 미술 매체의 소개와 활용도 내용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미술의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술의 시각적 형식에 있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²²⁾ 앞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미국

19) 박금숙(2001), 「자기주도적 학습력 증진을 위한 초등 미술교과서 대안모형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1

20) 고완석외(2001), 「미술과 생활」, 일진사

21) 교육인적자원부(1999), 전계서, p. 185

22) 상계서, p. 174

교과서에는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는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조형요소와 원리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형요소와 원리를 익히도록 되어있다.

조형 요소들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미술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본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이 분리되어 하나의 단원을 이루어서 체계적인 학습이 되어야 하겠다.

넷째, 교과서의 발문이 지시적이고 딱딱한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참고작품의 작가에 대한 소개가 부록으로 간략히 나와 있다. 소설이나 음악작품, 미술작품 등은 공통적으로 작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르이다. 따라서 작품소개와 더불어 작가의 소개는 작품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실마리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나 음악교과서에 비해 작가에 대한 소개가 교과서 본문에는 거의 안나와 있다. 교과서 발문에 친근한 어휘의 사용과 함께, 작가의 소개나 작가의 작품의도 등을 담아서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교과서 외형체제 및 편집의 변화와 개선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외형체제의 개선점으로는 교과서의 크기를 지금보다 크게 하고 쪽수를 늘려서 참고작품을 되도록이면 크게 수록해야한다. 현재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는 대부분 210×197mm 규격의 국배판으로 바뀌어 있다. 중학교 미술교과서는 182×257mm 규격의 4×6배판인데 현재보다 더 크고, 다양한 규격의 교과서가 나와야 한다. 스케일이 큰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양면을 다 활용하거나 교과서 크기의 3, 4배로 제작하여 접을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적 성격이 강한 미술교과의 특성상 좀 더 감각적이고 질 높은 참고작품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책으로 된 교과서만으로는 작품제작과정이나 참고작품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인쇄 교과서에서는 학습자료가 텍스트와 그림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으나 전자교과서에서는 문장과 그림을 포함한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²³⁾ 따라서, 보조교과서로 전자 영상교과서를 시디롬(CD-Rom)으로 제작하여 활용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개선을 위해서는 교과서 제도의 유연성 있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 디자인은 제재나 내용에 따라 그에 적합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획일성을 지양하고 생동감을 지녀야 한다.²⁴⁾ 편집 면에 있어서는 제목의 글자 크기를 지금의 두 배 정

23) 김영신(2002), 「정보화 시대에서 초등학교 미술 전자교과서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 18

도로 하여 강조하고 글자색상도 본문의 검은색 글자와는 다르게 차별해야한다. 지면의 활용도 바탕은 흰색에 검정색 글씨로 단조로운데, 단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글자체와 색채를 사용하여 교과서 자체도 배색이나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외국학생의 작품은 전혀 실려 있지 않은데, 세계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다른 나라 학생의 표현방식을 이해하고 그 나라의 지역적 특성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서예단원은 학생들이 오랜 기간 수련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흥미도도 떨어진다. 현재 6쪽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서예단원을 축소하고, 감상단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데 방대한 내용이 너무 압축되어 있으므로, 감상단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3) 다양한 표현재료와 용구의 확대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 모두는 미술품의 최종적인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다.²⁴⁾ 한·미·일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안전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지만,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일본은 과감한 재료의 사용으로 진보적인 경향을 띤다. 우리나라 역시 비교적 다양한 표현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재료는 도화지에 연필과 수채도구, 색연필 등으로 한정되어있다. 미술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종이류에서는 크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종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화지외에 신문지, 골판지, 달력지, 복사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폐지와 나무나 금속판, 형겅, 부직포 등에 그림을 그리고 입체물을 만들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표현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미술이 생활의 일부임을 상기 시키도록 한다. 물감 중에는 수채물감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루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수채물감과 유화물감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용이 용이한 아크릴물감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표현재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도시, 농촌, 어촌, 산간지

24) 박금숙(2001), 전계서, p. 33

25) 상계서, p. 161

역 등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재료가 있다.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표현활동의 영역을 넓히도록 개선해야 하겠다. 작품 제작 용구도 용도와 사용방법을 정확히 표기하고, 각 표현재료에 맞는 다양한 용구를 제시해야 하겠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학생용 미술재료와 도구들이 품질이 떨어지고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뒷받침 돼야 할 부분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대부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의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 교과서는 미술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업 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창의적이고 심도 있게 전개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예시 자료’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서는 교사, 학생 그리고 수업에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인 요소가 강한 미술교과의 특성상 미술교과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미·일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와 교과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의 편찬실태와 외형적 체제, 그리고 내용체계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일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의 외적체제에 있어서, 교과서의 크기가 한국과 일본은 4×6배판으로 같고 미국은 국배판으로 조금 더 크다. 쪽수도 미국이 가장 많다. 인쇄의 질은 일본이 가장 좋다. 색감이 선명하므로 작품감상에 훨씬 유용하다. 이를 참조하여 교과서의 크기를 지금보다 크게 하고 인쇄 질도 높여야 하겠다. 또한, 사용된 서체의 수가 적고 단순한데 단원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색상과 서체를 사용하고, 편집 그리드(Greed)에도 변화를 주어 감각적이고, 풍부한 느낌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보는데 있어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바뀌어야겠다.

다음으로 한·미·일, 세 나라의 교과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학문기초 미술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미술제작(표현)영역 뿐만 아니라 미학, 미술 비평, 미술사 등의 이론적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고 미술의 기본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도 각각 하나의 단원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건축과 새로운 영상매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의 내용분량 자체가 적지만, 회화·조소 영역 못지않게 디자인·공예영역의 비중이 높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디자인영역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세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장르가 파괴되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놓고 봤

을 때, 구체적인 미술 장르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구성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역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분방식을 탈피하여 좀 더 현실적이면서, 미술의 본질과 기능, 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은 우선,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 ‘미술과 음악’ 등 사회·문화와 연계된 내용구성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등 현대적 미술매체의 소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 나라 교과서에 실린 참고작품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작가와 외국 작가, 학생 작품의 비율은 적당한 편인데, 한 페이지 당 너무 여러 개의 참고작품이 실려 있어 산만하게 느껴진다. 페이지 당 참고작품의 수는 줄이고 그 크기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입체표현보다는 평면표현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도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외국학생의 작품이 실려 있는 교과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국경이 허물어졌고, 현대적인 영상매체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점에서 이에 발맞춰 교과서에도 외국학생의 작품과 뉴미디어를 다루는 현대작가의 작품도 수록해야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미적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좀 더 감각적이고 질 높은 참고작품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책으로 된 교과서만으로는 작품제작과정이나 참고작품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교과서로 영상교과서를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에 있어서는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도화지와 연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채물감을 사용이 빈번하고, 미국은 템페라물감과 오일 파스텔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에 있어 주의 점을 꼭 표기하여 재료와 용구의 안전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은 침금(沈金)²⁶⁾, 합판, 브론즈 등 재료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재료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고, 반면 대나무, 짚, 돌 등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학생들의 자연 친화적 표현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양한 표현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유팩, 빈 캔, 신문지등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제작은 미술과 실생활이 연계된 표현으로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재료와 용구사용에 있어 안전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겠고 지역성을 고려한 표현재료의 예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용이 용이한 아크릴물감의 비중을 높여야 하겠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내용을 추스려 보았는데, 이와 같은 개선점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26) 칠공예 기법의 하나로 옷칠을 한 표면에 바늘로 무늬를 뜨고 칠을 한 다음 금박을 하여 금빛 무늬를 나타낸다.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정제로 실시되고 있는 교과서제도를 과감하게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것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연구진과 집필진들의 끝없는 노력과 함께 많은 투자의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삼량(1994),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 정(1993), 「세계의 미술교육」, 예경
- 김 정 외(1998),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 박소영 외(1996), 「미술교과용 도서의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애(2001),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시공사
- 박은덕(2000),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체제 비교 연구-한국, 미국, 일본” 「미술교육논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노영자, 이인숙(2000), 「중학교 미술 1」, 교학사
- 노영자, 이인숙(2002), 「중학교 미술 1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 노영자, 이인숙(2000), 「고등학교 미술」, 교학사
- 고완석 외(2001),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일진사
- 日本造形教育研究會(2003), 「中學校 美術 1」, 開隆堂
- 文部省檢定教科書(2003), 「中學校 美術 1」,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 文部省檢定教科書(2003), 「中學校 美術 1」, 光村圖書
- Reynolds, Nancy Walkup(1992), *Art Lessons For the Middle school A DBAE Curriculum*, J.Weston Walch Publisher
- Mittler & Ragans(1999), *Exploring Art*, Glencoe Mcgraw-Hill Companies

<논문>

- 공형기(2000), “중등미술 교과서의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금숙(2001), “자기주도적 학습력 증진을 위한 초등 미술 교과서 대안 모형 모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안경선(2002),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순아(2000), “국내외 초등 미술교과서 체제 비교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원

이규명(2002), “韓·日 미술교과서의 참고작품 현황과 비교분석-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인경(2002), “미술교과서의 재료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승희(2002), “한·일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재료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상철(1999), “미술교과서 집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경규(1992), “현행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분석연구-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수(1998), “한·일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분석연구-도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지영(2000), “한·일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연구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

배우창(1999), “외국의 교과서제도16; 일본의 교과서제도” 「교과서 연구 33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국진(2000), “미국의 교과서제도” 「교과서 연구 35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Abstract>

Comparative Study among Fine Art Textbooks of Korea, America and Japan

Park, Hye-Young
Major in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erviaed by Prof. Kim, Bang-Hee

In fine art education of Korea, fine art textbook is playing important role for suggesting direction and range of study and proceeding study. Textbook is the basic material that systematically contains context of education according to aim of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Because it is important means for embodying education process, the research for external system and improvement of quality as well as context of textbook is necessary and must be continuously maintained.

And that, 21 century is informatization society and global age so, for confronting this kind of society and age, textbook has to be changed as well as revision of education process. From its viewpoint,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extbook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merit and demerit of Korean textbook and finding reasonable revision method.

This paper tried to find the method for more developing fine art textbook of Korea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context and system of fine art textbook of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of Korea, America and Japan.

First, it surveyed aim of fine art education and character of textbook of Korea, America and Japan.

Second, it comparatively analyzed actual condition of publication, external system and system of context of fine art textbook of Korea, America and Japan. Third, it searched revision point of fine art textbook of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mong fine art textbook of middle school of Korea, America and Japan.

Revision method of this paper based on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among fine art textbook of middle school of Korea, America and Japan is like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nlarge size of textbook and raise quality of print. And that handwriting used for textbook is very small and simple. Therefore, for preventing student from getting tedious feeling, it is necessary to make sensuous and fluent-feeling textbook through using various and unified color and handwriting according to character of unit

Second, from the aspect of context, it is necessary to give systematic study about modeling factor and its principle and actively consider introduction of modern media such as computer and image media as well as organize the context related to society · culture such as 'fine art and society', 'fine art and science' and 'fine art and music'

Third, from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n reference works contained in textbooks of three countries, in the textbook of Korea, the rate of Korean artist, foreign artist and student is reasonable but it gives a little diffuse feeling because too many reference works are contained in 1 page. It is necessary to reduce number of reference work per 1 page and enlarge its size. And that it has the tendency to concentrate on 2D expression rather than 3D expression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how more high-quality work to students for raising their aesthetic sensibility. Therefore it has to use image textbook made in CD-Rom as auxiliary one because textbook has the limit to show manufacture process of work and reference work.

Fourth, in use of material and tool, emphasis on safety and example of expression material considering local character are necessary. And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use of acrylic dye that student can easily use

To make textbook through reflecting improvement poin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conversion from current textbook system performed by official approval system to one by free publication system. Besides it, it requires enlargement of investment as well as endless effort of study and writing team